社 說

교육개방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대학의 위기를 맞이하여

'경쟁력 없는 대학은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말은 현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과 미래의 대학상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다. 안팎으로 거세게 몰아치는 개방압력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실패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내 전분야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교육 또한 예외는 아니다. 95년을 기점으로 예상되는 교육시장개방은 교육재정이 국민총생산의 5%도 채 확보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감안 해볼때 이러한 개방화추세는 전반적인 대학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학생대비 교원수의 상대적 부족, 연구지원 시설의 빈약, 대학 재정의 등록금의존도가 거의 80%에 달하는 등 위협수위에 달해 있는 대학의 교육 환경은 이제 더이상 '대학은 산성불가침의 성역'이라는 구시대적인 사고의 틀을 넘어서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언론은 이러한 대학의 위기를 표면화하기 시작했고, 대학과 교육부또한 나름대로의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의 위기는 더이상 대학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공개적인 사회문제로 부각시키면서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고, 교육부 역시 대학종합평가제 실시, 본고사 부활, 3학기제 도입 등을 검토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교육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전반에 걸친 개혁의 노력들이 구조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당면한 현실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나머지 시간이 흐를수록 위기감 조성만 더 부추기고 있다는 시실이며 문제이다.

언론은 언론대로, 교육부는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대로, 대학은 대학 스스로 그 해결점을 찾다보니 도답해야 할 목적지는 하나인데 서로들 주위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이다.

'변화해야 할 대학'이라는 대 명제속에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대학의 위상을 정립함에 있어 객관적 입장에서만 바라보고자 하는 제3자적 시각이 빚어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태도는 교육개혁의 근본주체인 대학과 그 구성원들의 주인의식 결여에 더 큰 심각성을 돌 수 있다.

교원의 질적향상을 위해 교수연구업적제, 강의평가제 등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기본권, 자율권 침해라는 교원들의 의견에 부딪쳐 도입시기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으며 대학당국은 교육재정확보의 현실적인 어려움만 역설하며 타대학의 제도개선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 바로 우리 교육현실이다.

진정한 주인의식은 행동에 있어 책임을 동반함을 안다. 대학의 문제는 이제 대학주체, 학교당국, 문교부 등 한 주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사회문제로 인식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한다.

대학의 미래는 곧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해결고리임이 분명하다. '교육지백년대계'는 대학의 주체들은 물론 교육에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의 통일된 의지가 함께 결집되어야 비로소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종합시간표 제도의 의미를 살리자

—수강신청 정정 기간을 앞두고

이번학기에도 수강신청때문에 여간 어수선하지 않다. 매년 겪는 연례 행사이다 보니 새삼 별난 일도 아니다.

그러나 애초 매년 겪게되는 수강신청과 정정에 따른 혼란과 시간낭비를 줄이고자 교무처에서는 많은 고심끝에 학기초의 수업결손을 막고, 강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종합시간표'제도를 시행한지도 2년째이고 특히 이번 학기에는 적지않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단과대학별로 강의계획서까지 책자로 만들어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숙지한 후 수강신청을 하도록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신청정정에 따른 학기초의 혼란이 여전하니 몇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종합시간표 제도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과목을 정정할 수 밖에 없는 데에는 교, 강사의 임의적인 수업시간 조정과 행정상의 문제로 인한 담당교수의 변경 그리고 강의 계획서의 부실함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강의 시간이 임의로 변경되고 담당교수와 강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종합시간표와 강의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강신청을 했던 학생들이 수강신청 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어처면 당연한 요구이다. 물론 학생들의 무성의한 수강신청도 큰 문제점이다.

사실 종합시간표 제도는 종전에 학과나 단대별로 시간표를 작성할 때에 비해 많은 교수, 학생 모두가 통제를 받고 불편함을 겪어야 했지만 그것을 감내하면서도 묵묵히 따르고 지지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강의 진행과 충실한 학사운영이라는 대의를 위해서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물론 강의시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담당교수가 바뀌는 예는 몇몇에 불과하다. 그러나 강의시간표는 한학기 강의에 대한 우리 모두의 약속이기때문에 몇몇에 의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 깨어지고 무너진다면 그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대다수에 대한 하나의 폭력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이제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종합시간표 제도나 강의계획서 발행이 갖는 장점을 취하고자 한다면 계획단계에서부터 보다 치밀하고 효율적인 제도가 되도록 행정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교수와 학생모두가 종합시간표와 강의계획서를 준수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학생들도 수강신청시 정정을 염두해 두기보다는 애초 정확한 수강신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대학 개혁은 바로 우리의 의식개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통일실현 위한 민족교육 필요

논문초록 한국 통일교육의 문제와 개선방향

신정현
〈정경대교수 정치외교학〉

본고는 학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학술연구조정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서중 우리학교의 신용철(문리대 사학)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신정현(정경대·정외)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가한 '교육을 통한 한국통일방향의 모색'이라는 연구보고서중 신정현교수의 한국통일교육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관한 글을 요약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註〉

분단국가들에 있어 역사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분단되기 이전에래 분단국가가 통일국가를 실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보통 분단국가의 과거 역사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통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분단국가는 분단되기 이전에 통일국가의 역사를 지속해 왔으며 따라서 분단은 적어도 역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우리 역사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몇가지 요소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 장구한 역사를 거쳐 오늘날까지 생존, 발전해 왔다는 사실이다. 우리 민족은 주변 세력들로부터 잦은 침략을 받아왔다. 때로는 민족의 생존자체가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비록 근세에 들어 일제(日帝)에 의해 35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지만 민족적 뿌리와 일체감을 상실하지 않고 단일민족으로서 존속하고 있다. 역사교육에 있어서는 이와같이 우리민족이 강인한 저항과 생존의식을 바탕으로 고유한 민족적 문화와 전통을 유지해왔음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이 어떤 장애와 부딪쳐있다 할지라도 통일국가를 실현해서 다시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단일민족국가로 존재해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이 바로 우리 민족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둘째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우리 민족이 다른 어떤 민족들에 비해서도 동질적인 삶의 양식을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생활 양식에서부터 문화, 예술등의 활동영역들에 걸쳐 우리 민족은 외래 문물에 완전히 몰입되기 보다는 독자적인 창작력을 발휘해 왔다. 그러한 우리 민족의 문화적 동질성과 독창성은 민족적 일체성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했다. 이런 문화와 역사의 유산은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비록 정치적으로 상이한 체제와 이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남북한은 민족문화의 공동 유산을 바탕으로 하나의 문화 공동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우리 민족의 고유하게 유지해온 동질적인 문화유산과 전통을 바탕으로 통일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공통된 정신적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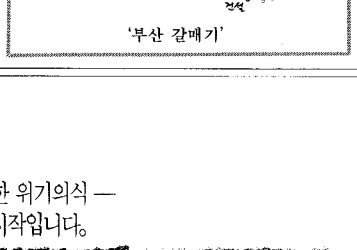
셋째로 우리 민족사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하나의 통일된 국가체제 밑에서 살아왔다는 정치사에 대한 재인식이다. 비록 전근대적인 왕정체제를 형성시켜 왔지만 그 틀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통일국가체제를 지속시켜왔다는 역사적 시실은 오늘날 존속하고 있는 분단체제의 부당성을 증분히 입증시키고도 남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간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의 통일국가역사는 오히려 분열성과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민족정신을 함양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치사의 재인식 과정을 통해 우리 민족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서 민족주의를 발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는 단순히 외세에 저항하는 정치적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동질적인 민족적 정치사를 기반으로해서 통일된 민족국가를 구현하는 민족정신의 요체가 될 수 있다.

끝으로 역사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민족의 근대사와 분단사가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근대사는 조선조의 통일국가의 기반이 외세의 침투와 내부의 무능력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해서 일제에 의해 식민지 지배를 당하기까지의 불행했던 역사적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근대사의 여정을 배경으로해서 해방과 더불어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 게된 과정과 그 원인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분석과 평가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분단과 그것을 촉진시킨 요인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이 있을때 분단의 극복과정은 오히려 용이해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민족분단의 원인들을 설명하는데는 보통 세가지 시각들이 제시되어 왔다.[2] 그중의 하나는 외인론(外因論)이다. 이것은 분단이 민족 내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과 소련에 의한 한반도 분할점령이었고 이로부터 분단은 미소간의 냉전체제 유지에 의해 고정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6·25전쟁은 동서냉전의 연장선상에서 열종의 대리전쟁의 성격을 띄고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내인론(內因論)이다. 이런 시각은 분단이 민족내부의 분열에서부터 그 씨가 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민족내부의 분열은 조선조 말기의 개화파와 수구파간의 갈등,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독립운동세력내에서의 좌우파간의 분열, 자본가와 노동자, 농민간의 계급갈등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분열양상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후 남북간의 분단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끝으로 또다른 시각은 질서존중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통일된 한국이 어떠한 이면과 체제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취급해야 한다. 이기서도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좀 더 구체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통일과정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를 달구하고 또 고안된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시키는 것이다. 우선 분단된 두개의 정치실체(혹은 국가실체)속에서 이질화된 민족내의 분열적 요소들을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동질적인 의식구조와 문화양식 및 가치체계를 형성시키는데 통일교육은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속에서 하나의 정치실체가 한반도에 형성된다 할지라도 이를 구성하는 민족요소들이 고도로 이질화되어 있거나 분열성을 내포하고 있을때 통일국가의 의미는 퇴색될수 밖에 없다. 적어도 하나의 국가사회를 구성하고 유지시키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원칙이나 가치 및 목표 등에 대한 내적인 합의된이 형성될 수 있을때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을때 통일국가의 실현은 비교적 적은 댓가를 지불하고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통일교육은 과연 우리가 어떠한 통일국가를 실현해야 할것인가에 대해 확고한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적절한 교육내용을 구성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통일국가가 적면하게 될 국내외적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조건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통일국가의 기반을 형성하는 이념과 체제 및 삶의 양식에 대한 범민족적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통일교육은 충분한 교육내용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위상을 고려해 볼때 적어도 몇가지 기본원칙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통일된 한국에 있어 민족성원들은 보다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을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통일한국은 보다 더 안정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실현해야 한다. 셋째로 통일된 한국은 국제화 되어가는 탈냉전의 세계에서 계속 번영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이런 조건들이나 원칙들이 확실하게 포함되지 않을 경우 통일한국의 실현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통일된 한국에서 민족성원들의 삶의 질이 분단된 상태에서 보다 떨어질 경우 통일을 위한 댓가의 지불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이런의미에서 통일지상주의는 통일교육에 있어 조심성 있게 다루어 져야 하며 오히려 그것이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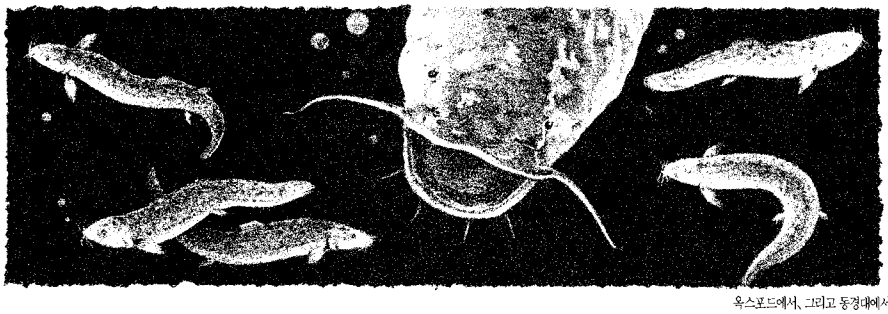
'부산 갈매기'

문화·의식·가치체계 동질화에 중점

민족재통합시의 부작용 최소화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메기論 적절한 자극과 건전한 위기의식 — 변화와 자기발전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미꾸라지만 키웠을 때와 메기와 미꾸라지를 함께 키웠을 때를 비교해 보면 — 놀랍게도 메기와 함께 자란 쪽의 미꾸라지가 훨씬 더 통통하게 살이 쪄 있었다고 합니다.
메기의 자극,
미꾸라지의 위기의식 — 이것이 미꾸라지를 더욱 튼튼하게 변화시켜 주었던 것이죠.

젊음에게도 항상 적절한 자극과 건전한 위기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과 경쟁에 뒤지지 않을 힘을 기르기 위해가는 —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메기' 한 마리를 길러보세요. 스스로에게 자극을 주고 자기발전을 가져다 줄 메기 — 가령 나태해지려는 자신을 다잡아줄 수 있는 자기자신이 메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도서관에서 밤늦도록 내일을 밝히고 있는 가까운 친구, 하버드에서, 옥스포드에서, 그리고 동경대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세계의 젊은이들…
이 모두가 여러분에게 건전한 위기의식을 심어주고 자기발전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삼성은 건전한 위기의식으로 과감한 자기변신을 추구하는 젊은 지성과 만나고 싶습니다.

SAMSUNG 삼성